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파 교회학교가 참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과 평화의 길을 배우고 익혀 죽음으로 치달는 곳에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쟁과 학살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총성은 계속되고 있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난민이 되어 떠도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계21:3b,4 ..... 인도자  
 ▲ 교 독 문 ..... 112. 교회교육주일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하현철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199. 나의 사랑하는 책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사 28:23-29 ..... I. 인도자  
 ..... II. 송동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I. 주님만이 나의 전부 ..... 1부 찬양대  
 ..... II. 영원한 하프소리 ..... 2부 찬양대  
 하프소리 울려오네 영원토록 울리네  
 깊은 바다 요동칠 때 주께 기도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나의 영혼 슬퍼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나를 안전하게 멀리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나의 영혼 피곤할 때 주님 인도하시네  
 복된 주의 찬양 소리 희마하게 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말 씬 .....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주님과 같이 ..... 예배부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참된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서두르지 말고 정성껏 삶의 자리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가꾸며 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반드시 결실할 것입니다.

다 함 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뿌려야 할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을 뿌리고 기르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주님의 때를 따라 뿌리고 꾸준히 가꾸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 믿음으로 읽는 글 ■

#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권위적인 붉은 색 망토 걸치기를 거부하고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로마의 주교’로서 소탈하게 첫인사를 하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는 군중에게 강복(축복)을 주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먼저 허리를 굽혔다. 고위 성직자들에게 “교회의 직무나 직위는 섬기기 위한 것이지 명예도 훈장도 출세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훨씬 뒤였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강론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적이다.

“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원합니다. ... 안온한 성전 안의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어나가 명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합니다.”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고 격려하는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서도 거듭 강조되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복음의 기쁨….

적지 않은 개신교 신자들과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 주교’를 바라보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주춤했던 교회 일치의 희망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세계로교회협의회)의 사무총장 장 올라프 트베이트 목사는 “교종이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이루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와 칼뱅의 많은 후예들은 가톨릭 교회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50년 전부터 가톨릭과 대화를 시작한 세계로교회연합의 마틴 용게 사무총장은 다가오는 몇 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려 한다. 이 500주년을 교회 일치 운동의 맥락에서 기념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가톨릭교회의 동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00년 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부르심은 무너진 성다미아노 성당으로 상징되는 당대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라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위기에 처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종의 개혁은 조용하게 시작되어 전방위적이고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신선한 스타일과 아름답고 상징적인 행동이 많은 감동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인사와 재정, 제도와 조직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새로운 탄생에는 으레 아픔이 수반되는 법이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미 보여주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불날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교종이라 해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교회법이나 문서가 아니라 작은 이들, 외로운 이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내미는 따스한 손길과 그들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목소리다. 그리고 불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정직한 용기다. 그것은 지킬 것과 잃어버릴 것이 적어야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여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다시 큰 울림으로 들려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것은 초대이면서 도전이다. 나는 누구의 상처를 싸매주고, 누구의 손을 잡아주며 누구의 발을 씻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단순하게 하여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를 통해 다가가신다.

- 신한열, 「함께 사는 기적」(신앙과지성사)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욕심

- 조영웅

분명 옆에 있는데  
내 것 아니라고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데  
왜, 불편할까  
소풍처럼 즐겁지 않을까  
여행지에서 만난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그늘 아래 잠시 머물렀다  
고맙다 생각하고  
지나가듯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왜, 자꾸 무거워질까  
살아지는 걸 왜, 자꾸 살아보려고 했을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광새롬 김명하 오형일 김명희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정린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태정 김현주 김혜영 김문금 석석진 박정숙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박인혁 방민숙 양경준 준재민 이소혜 서수진 설규범 손속경  
 송인근 송인선 송태조 안미숙 이왕준 우경환 은종인 이주영 오재영 노영숙 김민화 이고영  
 류정욱 임명희 김신실 이순이 양왕준 송상다 이주영 오재영 노영숙 김민화 이고영  
 임광호 임명희 장기환 장동훈 이정은 홍예선 홍예선 정현 오재영 노영숙 김민화 이고영  
 최숙 최윤화 한상수 남해린 현진 신안홍속

### 감사헌금

김명희 김수경 김향자 박석원 양선용 박진주 박홍재 방경선 설규범 신영욱  
 오연훈 유수진 유지은 은종인 이건호 김보민 이고임 임선양 임종수 임형옥 류정욱 이왕준  
 송상경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은옥 조유진 조은상 김소연 차혜심 박성희  
 정수현 정영례 정재우 정학성 김현숙 조유진 조은상 김소연 차혜심 박성희  
 하현일 김광우 한상수 남해린 태초에 플라워샵 무명7

### 생일감사헌금

김철수

###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지현 이고임 장현희

## ▪ 집 회 안 내 ▪

<b>주일 오후 집회</b>  선교회	<b>수요일 집회</b>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학교를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초록가게 미니바자회** : 어린엄마(미혼모)와 아기를 돕기 위한 미니 바자를 다음 주일(24일) 초록가게에서 엽니다. 도움이 될 육아용품 기증해 주십시오.
4. **판매** : 태안읍 에덴교회가 마을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강정을 판매합니다. (1봉지에 1만원)
5. **판매** : 영월 친환경포도 주문 예약받습니다. (포도 5kg 25,000원, 포도즙 5개 38,000원, 산머루 2kg 18,000원, 산머루즙 35개 38,000원) 음성 무농약고추 주문 예약받습니다. (고추가루 1근 17,500원) 교회수령은 9월24일입니다.
6. **주보** : 1부 예배에 사용하신 주보를 안내에게 주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 **모집** : 전교인 나들이 카페마당에서 함께 일하실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커피 핸드드립이 가능하고 주전자와 드리퍼 등 기본 기구를 갖추신 분, 라떼아트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대환영합니다. (김재환 집사 010-3912-2875)
8. **신앙실천** : 난민이 되어버린 로힝야족 40만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 떡 커피 대접 : 조문규 진정숙

· 10월 15일 청파 전교인 나들이 ·  
 팀비전센터 (불광동 소재)

다음 주 설교 본문	마 5:13-16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청년 중	청년 중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하현철
9월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이성범	정원석 박상규	김애순 김현영
2부 헌금위원	김인걸 안홍숙		

오늘 식당 봉사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이현정 조장형 박재영
다음주식당봉사	2부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교사
	다음 주 주차봉사 남명진